

남아공에서 세계로

복음전파 Evangelism | 제자훈련 Discipleship | 세계선교 World Mission

이달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8)

청소년 사역



<Ravensmead 고등학교 사역을 시작하다>



보내시고 세우시는 하나님

이 글을 쓰고 있는 오늘은 8월의 첫 주일을 앞둔 토요일입니다. 남아공은 여전히 겨울의 한복판을 지나고 있지만, 저희 마음은 모레 월요일부터 시작될 새로운 사역 일정으로 벌써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8월 3일 월요일부터 10박 11일 동안 JDM 포항지구 한동대 학생들이 케이프타운 캠퍼스 사역을 위해 남아공을 방문하게 됩니다.** 지난 6월과 7월 동안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참 많은 은혜와 도전의 시간을 보내고 남아공으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주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젊은이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마음이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숙소와 식사, 캠퍼스 전도 일정, 현지 학생들과의 만남, 함께 드릴 예배와 나눔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은 선교는 사람이 계획하는 일 같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번 포항지구 한동대 학생들의 방문이 단순한 해외 경험이나 짧은 봉사활동이 아니라, 남아공 캠퍼스의 영혼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동시에 자신들의 삶을 다시 주님께 드리는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뿌릴 복음의 씨앗이 UWC와 CPUT 캠퍼스 곳곳에 심기고, 이미 주의 제자로 자라가고 있는 남아공 JDM 학생들에게도 큰 격려와 도전이 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지난 두 달을 돌아보면 참 숨 가쁘게 달린 시간이었습니다. 미국에서의 목사 안수, 제10차 JDM 세계선교대회, 선교지도자세미나, 남아공 학생 리더들의 한국 방문까지 이 모든 하나하나가 제 삶과 사역에 깊은 의미로 남은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일정을 다 설명하기에는 지면이 부족하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 흐르는 한 가지 고백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당신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보내고 계십니다.** 이러한 삶과 사역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동역자님의 귀한 기도와 동역 때문임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주의 제자를 세우고 훈련하고 파송하는 일에 힘을 다해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아공 사역 들여다보기



JDM 세계선교대회, 선교 지도자세미나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3일까지 평창 한화리조트에서 약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0차 JDM 세계선교대회가 열렸습니다. 4년마다 열리는 이 대회는 예수제자운동의 가장 중요한 선교 축제이자, 한국의 대학생들과 전 세계 선교사들, 현지 사역자들, 학생 리더들이 함께 모여 세계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다시 서는 자리입니다. 코로나 이후 급변한 세계, 전쟁과 분열, 세속화와 무관심, 다음세대 신앙의 약화와 캠퍼스 사역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모든 민족 가운데 자기 백성을 부르시고, 그 일을 위해 헌신된 제자들을 세워가심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저는 “아프리카 선교와 미래”를 주제로 선택식 강의를 맡아 섬겼고, 마지막 날 저녁 집회에서는 “파송”을 주제로 말씀을 전하는 귀한 기회를 가졌습니다. 주제강의를 준비하며 제 마음에 깊이 남았던 것은 파송이란 내가 결단하고 용기 있게 어딘가로 나가는 일이기 전에, 우리를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신 주님의 보내심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대회를 통해 많은 젊은이들이 두려움과 자기중심적 신앙에서 벗어나, 복음을 확증하시고 우리를 보내시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어디든 나아 가는 종신들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감사했던 것은 3일간 진행된 선교박람회였습니다. 각 나라의 선교 현장과 사역을 소개하는 부스들 가운데 남아공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 7명의 리더들을 바라보며 제 마음에 참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4년 전 같은 자리에서 저는 아내도 없이 혼자 남아공 부스를 지키며 목이 쉬도록 이 땅의 상황과 캠퍼스 사역의 필요를 설명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남아공 학생 리더들이 직접 자신들의 언어와 고백으로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행하고 계신 일을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제게는 큰 감동이자 감격이었습니다. 여기에 남아공 단기선교사로 섬겼던 이민정 자매도 함께하여 부스를 돕고 사역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한때는 선교사 혼자 붙들고 설명하던 사역이 이제는 현지 리더들과 단기선교사 출신 동역자가 함께 증언하는 사역이 된 것입니다. 지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사람을 보내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세워오셨는지를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꿈꾸어 온 재생산 사역의 작지만 분명한 열매처럼 느껴졌습니다.

세계선교대회가 끝난 뒤, 7월 6일부터 10일까지는 경기도 가평 필그림 하우스에서 선교 지도자 세미나가 이어졌습니다. 이번 세미나에는 국내 간사와 해외 선교사들, 현지 사역자들, 그리고 간사와 선교사 자녀들까지 약 280명이 함께하였습니다. 선교대회가 세계선교를 향한 부르심과 헌신의 자리였다면, 선교세미나는 그 부르심을 각자의 현장에서 어떻게 지속 가능하고 책임 있게 감당할 것인지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번 세미나에서 전체 진행을 맡아 섬겼습니다. 오랜만에 큰 규모의 모임을 진행하게 되어 긴장도 되었지만, 함께 섬긴 임원들과 베테랑 사역자들의 협력 덕분에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간사들과 선교사들이 함께하는 체육대회를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우리가 단순히 같은 일을 하는 조직이 아니라 주 안에서 한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가족공동체임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강의와 특강, 여러 나라와 현장에서 사역하는 동역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남아공 캠퍼스 사역이 아프리카와 세계선교의 흐름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다시 큰 그림으로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남아공 사역 들여다보기



7명의 남아공 리더들의 한국 방문

이번 여름 또 하나의 큰 은혜는 남아공 JDM 대학생 리더들의 한국 방문이었습니다. 6월 21일부터 7월 12일까지 약 3주간 저메인, 꼬시, 케텔로, 안토니, 다니엘, 깔라렐로, 마파세카, 이렇게 7명의 남아공 대학생 리더들이 한국을 방문하였습니다. 이들은 남아공 JDM 공동체 안에서 말씀으로 훈련받고, 캠퍼스를 섬기며, 리더로 자라가고 있는 귀한 학생들입니다. 저희에게는 단순한 학생들이 아니라, 앞으로 남아공 캠퍼스와 아프리카 사역의 미래를 함께 짊어질 소중한 동역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국 방문은 이들에게 단순한 여행이나 문화체험이 아니라, **세계선교의 비전을 몸으로 배우며,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삶을 어디로 부르고 계시는지 묻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처음 한국 땅을 밟은 이들에게 모든 것이 새롭고 낯설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한국의 거리, 음식, 대중교통, 교회 문화, 빠른 일처리와 분주한 도시의 움직임까지 하나하나가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매운 음식을 먹고 당황하기도 하고, 처음 경험하는 한국식 예배와 찬양에 놀라기도 하고, 자신들을 가족처럼 맞아주는 성도님들과 대학생들의 사랑에 감격하기도 했습니다. 낯선 땅이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들을 품어주는 사람들을 만나며 이들은 한국을 단순한 방문지가 아니라 믿음의 가족들이 있는 곳으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방문 기간 동안 이들이 머물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주신 부산 영안침례교회 안성종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남아공 리더들을 따뜻하게 맞아주고 여러 모양으로 섬겨준 **JDM 부산지구 아들람, 블레스, 하기오스 공동체** 지체들에게도 특별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외에도 **비행기 항공권과 숙소비를 후원해주시고 끼니마다 식사로 섬겨주시고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누군가에게는 익숙한 공간과 평범한 식탁이었을지 모르지만, 이들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들이 환영받고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깊이 느끼게 해준 감동의 자리였습니다. 받은 사랑 기억하며 공동체와 함께 이곳에서 더욱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이들에게 가장 큰 은혜가 되었던 것은 **JDM 세계선교대회 참석과 한국 대학생 리더들과의 교제**였습니다. 수많은 대학생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 앞에 반응하며, 세계선교를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리는 모습을 보며 이들의 마음에도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자신들만 작은 공동체 안에서 외롭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 같은 복음과 비전을 붙들고 살아가는 젊은 제자들이 있다는 사실은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7명 중 3명이 사역자와 선교사로 헌신을 결단**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들은 다시 남아공으로 돌아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국에서 받은 은혜와 도전이 일시적인 감동으로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 성도들과 사역자들의 헌신과 질서, 공동체를 향한 책임감에서 받은 도전이 남아공 캠퍼스 사역 안에서 실제적인 섬김과 헌신으로 이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메인, 꼬시, 케텔로, 안토니, 다니엘, 깔라렐로, 마파세카가 복음과 말씀과 기도로 더욱 깊이 뿌리내리고, 또 다른 제자들을 세우는 남아공 사역의 중심 리더들로 귀하게 쓰임받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한국에서 받은 사랑이 남아공 캠퍼스의 영혼들에게 흘러가고, 한국에서 본 헌신이 이들의 삶 속에서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이들의 한국 방문이 가능하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동역해 주신 분들에게 다시 한 번 지면을 빌려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남아공 사역 들여다보기



<기도제목>

1. 포항지구 선교팀의 안전,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2. 캠퍼스 현지 사역자가 세워지고 7명의 리더들이 재생산해가도록
3. Ravensmead 고등학교 사역이 말씀과 복음 위에 든든히 세워지도록
4. 주호 주환이가 주님을 깊이 만나고 사랑하기를
5. 두 단기선교사가 안전하고 복음으로 충만하도록
6. 배한나 선교사에게 지혜와 강건함 주시도록
7. 동역자들의 삶에 주의 형통케 하심 의 은혜가 흐르도록

남아공 선교후원 계좌
 신한 56216879658306 김영광
 (매달 20일 당월 후원 마감)

새로운 학기 그리고 새로운 사역

2학기 사역은 CPUT 전도모임과 소그룹으로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반면 UWC는 1학기 때 있었던 학생폭동의 여파로 학사 일정이 지연되어, 8월 셋째 주부터 본격적인 2학기 사역을 시작하게 될 예정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변수들로 인해 계획한 일정이 흔들릴 때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여전히 캠퍼스의 문을 여시고 예비된 영혼들을 만나게 하실 것을 기대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감사한 것은 대학 캠퍼스뿐 아니라 **고등학교 사역의 문도 새롭게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Ravensmead 고등학교**에서 인턴 교사로 섬기고 있는 저메인의 기도와 도움으로, 한국을 방문하기 전 학교를 찾아가 교감선생님과 기독교학생모임을 담당하는 선생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처음 찾아가는 자리라 조심스러움도 있었지만, 감사하게도 두 분 모두 저희를 아주 흔쾌히 맞아 주시며 학교 안에서 모임을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31일 금요일, 드디어 첫 모임을 시작**하였습니다. 앞으로 매주 금요일마다 약 한 시간가량 학생들을 만날 계획입니다. 긴장되는 첫 모임이었지만, 저희를 소개하고 학생들에게 말씀을 전했을 때 마음 깊이 큰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아직 모든 것이 시작 단계이고 앞으로 어떻게 모임이 세워져 갈지 알 수 없지만, 이들과의 만남이 너무나 기대됩니다. 남아공의 청소년들은 대학생들과는 또 다른 질실함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과 지역사회, 학교 환경 속에서 여러 도전과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이들이 많지만, 동시에 복음 앞에 마음을 열고 반응할 수 있는 귀한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고등학교 사역을 통해 학생들이 어린 나이에 복음을 듣고, 자신의 정체성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며, 장차 대학과 사회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 자라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단기선교사들과 가정 소식

지난 **6월 6일 미국 WPC(World Presbyterian Council) 교단 서가주 노회** 소속으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2008년부터 캠퍼스 사역자로 부름받아 지금까지 여러 모양으로 주님을 섬겨왔지만, 안수식의 자리는 제게 또 다른 무게와 책임감으로 다가왔습니다. 특별한 자격을 얻었다는 감격보다, **더 낮은 자리에서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주님의 양들을 섬기도록** 부름받았다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컸습니다. 부족한 종이 끝까지 주님의 마음을 잃지 않고 신실하게 맡겨진 영혼들을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두 단기선교사, **정현정 자매와 차민성 형제**도 감사함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여러 일정으로 분주한 시간을 보내는 동안, 두 사람은 남아공에서 공동체와 가정을 귀하게 섬겨 주었습니다. 이제 후반기를 시작하는 이들이 캠퍼스의 학생들을 사랑하고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아내는 가정과 공동체를 사랑으로 품고 복음으로 영혼을 세워가는 기도의 여인**입니다. 주님께서 아내에게 영육간의 새 힘을 주셔서 체력적으로 지치지 않고 2학기 사역도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주호는 입시생의 시간을 지나며 자신의 미래와 진로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데, 주님 안에서 비전을 발견하고 충실하게 학업에 임하는 믿음의 청년으로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주환이는 요즘 입이 터져 맛있는 음식을 참 좋아하고, 한글학교에도 등록하여**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신실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해가는 동역자들의 삶이 되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